

##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교육

송향근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 1. 머리말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 기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국내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이 커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의 해외 보급,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및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일본과 미국 중심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재외 동포 중심에서 현지 외국인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습 수요가 급증하였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직무 목적을 가진 국립국어원이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5월 직제 개편에 따라 국어진흥교육부 안에 ‘한

국어진흥팀’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직무는 2009년 4월의 직제 개편에 의해 ‘정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재이관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 연구 활동’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sup>2)</sup>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보급과 관련한 사업 성과는 크게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한국어 교원 연수,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 및 세종학당 운영의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2005년 국어 기본법과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정립됨으로써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과 한국어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비학위 단기 과정의 교육 과정 체계화와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단기 교원 양성 과정 수료자가 3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

- 
- 1) 2005년을 전후하여 문화부로부터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 업무가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고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2009년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과 세종학당 및 누리-세종학당 등의 주요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민족문화과로 재이관됨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사업 및 조직이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립국어원, 2011: 155)
  - 2) 2007년 이전에도 국립국어원은 여러 한국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1992년부터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연수와 재외 동포를 중심으로 한 해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는 외국어 내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란 점에서 중요한 사업 성과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사업(2003)도 주목하여야 한다.

격하여야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의 주관 아래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이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이 시험 시행에 있어 두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는데, 우선 시행 기관의 적절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회와 제5회 시험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직결되는 시험을 국가시험 관리 기관의 일원화라는 정부 정책 아래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한국어 교육계의 우려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시험 문항의 타당도과 신뢰도 문제이다. 제한된 출제 위원의 수와 한국어 교육론 이외 영역의 출제 위원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대적인 이해 부족 등에서 생겨난 문제로, 출제와 선제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출제 방식 대신 출제 기간을 확대하고 출제와 검토가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에 소요 예산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가시험이라도 수혜자의 분담이란 면에서 응시료의 인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는 국어 기본법과 국어 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과 함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2급 자격증을,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과 함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총 12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3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2006년 7월 처음 발급되기 시작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11년 2월 현재 2급 2,234명, 3급 3,338명으로 총 5,572명이다. 3급 취득자 가운데 약 89%인 2,963명이 양성 과정 이수와 검정 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증

을 취득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들 중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대학 또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를 조건으로 함을 고려할 때 3급 취득자 중 교육 현장 교사의 상당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사의 평균 19% 정도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란 점에서<sup>3)</sup> 알 수 있듯이 이들 교육 기관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문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10년 상반기에 실시된 이 양성 과정의 1차 과정을 이수한 방문 교사의 7~8%만이 제5회 검정 시험(2010년 10월 실시)에 합격하였다는 점이다.<sup>4)</sup> 결국 결혼 이민자나 아주 근로자 대상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는 점진적 방안보다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현행 2급과 3급 교원 자격 제도와는 별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다음 소정의 시험을 거쳐 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sup>5)</sup> 정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사 가운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급별 분포는 2급과 3급이 각각 5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63)

4) 지금까지 총 5회 실시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평균 25% 정도이다.

5) 해당 양성 과정에 참여한 상당수의 방문 교사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학습 기간,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양성 과정 이수 후의 검정 시험 합격 가능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양성 과정과 검정 시험을 통한 3급 자격증 취득의 방법보다는 사이버 대학의 한국어 교육 학 전공 졸업을 통한 2급 자격증 취득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방문 교사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보수 등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이직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결국 봉사 차원에서 한국어 교사를 한다는 방문 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문 교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인식 및 한국어 교육 능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책적 판단이 필요하다.<sup>6)</sup>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실시 이후 한국어 교육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자격 심사에 있어 2005년 7월 최초 시행된 국어 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여러 경우가 있었으나 2010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을 해결하였다. 또한 2010년 초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의 발간도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기관이나 교원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필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였다. 교원 자격 심사를 포함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현재의 개인 인증 방식에서 기관 인증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3. 한국어 교원 연수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연수와 재외 동포를 중심으로 한 해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는 1992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어문 규범 보급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과 2000년부터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2007년부터는 해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와 함께 국내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원 양성 과정은 주로 다문화 가정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교육하는 한국어 방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을 대상으로도 시행하였다.

해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회는 해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이나, 예산 운용을 포함한 교육의 효과

---

6)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성 확보,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을 연구하기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이 2008년에 이어 2011년에도 수행 중이다.

성 측면에서 향후 초청 연수보다는 파견 연수를 보다 활성화하고 연수 기간을 최소 2주 내지 3주 정도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해외 한국어 교사나 교육 기관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 교원 양성 과정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내 초청 연수보다는 파견 연수의 경우에 더 적합하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의 요구가 큰 국가나 지역의 세종학당을 이용하여 개최한다면 세종학당의 대외 위상 확보와 제고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산의 제한 등 여러 요인으로 충분한 연수 기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1주 또는 2주 정도로 하되 동일한 장소 내지 근접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어서 개최하고 국립국어원이 이미 개발한 온라인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120시간의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초청 연수는 2009년과 2010년의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를 통해서도 실시되었는데 향후 매 대회마다 초청 대상자를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달리하고,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수 일정을 운영한다면 연수 효과의 향상이 크리라 본다. 2010년의 교육자 대회와 연계하여 대회 기간에 앞서 세종학당 교원과 해외 대학 및 중등 학교의 한국어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를 각각 실시하였다. 현재 해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초청 연수는 여러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됨에 따라 피초청자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예를 들어 국외 한국어보급기관협의회에서 조정 및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피초청자의 중복을 지양하여 수혜자를 확대 및 다양화하거나 피초청자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초청 연수 교육의 단계화와 연속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교·강사의 재교육을 위한 공동 연수회의 개최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 교사 간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참석자의 높은 만족도 등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향후 이 연수회의 발전을 위해 한국어 교육의 이론보다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방법, 학급 운영, 학생 상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연수 일정을 구성하고<sup>7)</sup> 연수 기간과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일선 한국어 교육 기관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 교안 작성 등을 지도한 교육 사업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사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이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sup>8)</sup> 업무 부담에 따른 다소 부정적인 접근 내지 낮은 호응의 정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등에 관한 사전 홍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파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실무 교육 내용에 있어 단기 교원 양성 과정의 축소판 같은 구성을 지양하고 한국어 교육 이론보다는 다문화 가족 현장 교육의 실례나 실제 교수 방법 등 의 내용으로<sup>9)</sup> 구성할 필요가 있다.

#### 4.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

교재는 언어 교육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

- 
- 7) 참석자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경우가 많기에 더욱 그러하다.
  - 8) 예를 들어 교육의 내용 중 교안 작성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의 기회가 적거나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요구 조사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개선 내지 향상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9) 학습자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자기의 모국어와 함께 향후 제2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예비 이중 언어 화자란 점에서 이들을 교육하는 한국어 교사도 교수 방법 등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교육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은 이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교육 사업을 담당할 교육 전문가를 선발할 때 이중 언어 교육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거나 사전 실무 교육에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지이다. 범용 교재보다는 학습자의 수요, 환경, 모어와 학습의 목표 등을 고려한 교재가 필요하며, 학습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외 통용 한국어 교육 과정 표준 모형 개발 및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언어 기능별 영역에 따라 분리형으로 개발한 《초급 한국어》를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현지화 작업을 하였고, 중급 단계는 영역별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중급 한국어1》과 《중급 한국어2》로 개발하여 마찬가지로 현지화 작업을 하였다. 이 교재는 세종학당과 한국 문화원의 교재로 보급, 활용되고 있다.<sup>10)</sup> 외국어 교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학습자의 모어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야 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재의 현지화 작업은 한국어나 영어로 설명된 부분을 단순히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 모어 화자인 복수 이상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번역, 감수 및 평가를 통하여 사용 국가나 지역의 환경을 나름대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교재의 발간에 있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외국어 모어 화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개발 목적과 방법조차 현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침서와 워크북이 발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1·2단계와 3·4단계의 교재 2권이 발간되었고 5·6단계는 개발 중이며, 교사용 지침서는 단계별로 개발, 발간되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공동 학습 교재인 《알콩달콩 한국어》는 중국어판과 베트남어판으로만 발간되

10) 국립국어원은 현재 이 교재들이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외국 현지인 중심의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세종학당과 문화원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형인 《초급 한국어》 역시 통합형 교재로 새로이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었으나, 여성 결혼 이민자 다수의 출신 국가를 고려하면 몽골어판, 태국어판 등의 발간이 필요하다. 아주 노동자 교재인 《아자아자 한국어1》이 발간되었고 《아자아자 한국어2》는 개발 중이다. 이 외 방송 프로그램과 디브이디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재나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언어권별, 수준별 한국어 교재를 단계적으로 자체 개발 및 발간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발간된 우수한 교재들을 표준 한국어 교재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발전에 있어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습 수요가 크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발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나 유아 등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의 사전 작업으로 학습자의 모어나 학습 환경 등 학습 변인 분석의 기초 연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의 기초 연구 사업으로는 예산 소요가 크고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담화 말뭉치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능력 단계별 기초 어휘 목록 선정, 기존의 한국어 학습 사전보다 수록 표제어가 많고 체계적인 사전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5. 세종학당 운영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공동 브랜드화는 공동 홍보를 통한 한국어 보급 기관에 대한 인지도 향상, 창구 단일화를 통한 한국어 학습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표준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란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세계적인 한국어 교육 브랜드 육성’이란 비전 아래 통

합화, 표준화, 세계화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세종학당 수를 확대하고, 브랜드 관리와 화산, 조직 관리, 운영 관리의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어 보급과 관련한 업무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체계의 통일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통합 기구 신설의 필요도 제기되었으나 각 부처와 기관이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2007년~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2009년 5월~2010년 2월)를 거쳐 2010년 3월부터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세종학당 운영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비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곳’인 ‘세종학당’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종학당 본부가 한국어 교육 활동의 성과와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인 ‘인증 세종학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2월 현재 ‘세종학당’은 설립 중인 곳을 포함하여 17개국 29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세종교실’로 명칭을 수정할 예정인 ‘인증 세종학당’은 20개국 59곳이다. ‘인증 세종학당’의 세부 내용은 민간 3개국 4곳,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곳, 문화원 12개국 14곳, 교육원 13개국 36곳이다. 세종학당 사업 계획은 2015년까지 ‘세종학당’ 150곳, ‘인증 세종학당’ 350곳으로 총 500곳의 설립 또는 인증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종학당’ 설립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사업 예산의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의 활용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학을

비롯한 국내 교육 기관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참여하는 세종학당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11)</sup>

세종학당 사업 계획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세종학당 운영자,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원을 위한 원격 교육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의 구축 및 운영이다.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가 지원되고 스페인어와 러시아어를 추가할 예정인 누리-세종학당에서는 향후 여러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수준별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자원 및 교육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존에 개발, 운영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한국어 교육 관련 누리집의 처리 문제이다.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존 누리집을 누리-세종학당에 연결하여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세종학당 사업은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재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의 성공 여부는 참여하는 단체와 기관들의 수적 확보가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관리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세종학당 사업이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데에는 세종학당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기초를 다져 놓은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컸으며 향후에도 세종학당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이 계속되리라 기대한다.

---

11) 특히 대학의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파견, 현지 교원의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6. 맷음말

국립국어원은 2014년까지의 한국어 교육 진흥 중기 사업 계획의 목표를 “한국어 세계화의 기반 조성”으로 세우고, “한국어 전문 정부 기관으로서 대표성·전문성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관 기관 및 학계 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추진 전략 아래 중점 과제로 “기초 연구 강화,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 구축,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체제 강화, 참여형 학습 등 교육 방식 다각화”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주요 사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이외에도 표준어에 기반한 표준 발음과 실제 현실 발음의 차이를 의사소통 능력의 교수 학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다문화의 정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에서 이중 언어인, 이중 문화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을 위한 보다 특수한 차원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어의 보급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정부의 주무 기관이다. 주무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의 보급과 한국어 교원 및 교육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 기능의 조정과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조율에 있어 그러하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기초 연구에 대한 대규모 장기 사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어 교육 진흥 중기 사업 계획’과 앞으로 수립할 장기 사업 계획의 성공적 달성이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직결됨을 인식하면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관련 분야의 발전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진흥 중기 사업 계획』,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1), 『국립국어원 20년사』,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 인터넷 누리집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http://www.korean.go.kr/kteacher/>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한국어세계화재단 <http://www.glokorean.org>

